

■ 공연예술창작산실_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_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 (1차 서류)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14:00~18:00
 - (2차 인터뷰)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09:30~19: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남, 김은영, 박정아, 신정화, 이재진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에는 총 5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이 중 필수 자료 미제출 등 행정 결격 사유를 가진 6건을 제외한 47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제출하신 지원 신청서 및 자료 일체를 사전 검토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17건을 선발하였고 2차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11건의 사업이 3차 실연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는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사업 계획의 타당성(40%), 기대효과(10%)의 심의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뮤지컬 분야에는 기존에 왕성하게 활동 중인 기성 창작자뿐 아니라 다양한 창작자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젊은 창작자들까지 넓은 세대의 작품이 지원했습니다. 역사 속 실존인물부터 고전의 재해석, 환경과 사회 이슈, 외계인과 동물, 고립된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배경과 소재에 맞는 다양한 시도와 컨셉이 돋보이는 지원작이 많았습니다. 특히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모습을 다루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나 캐릭터 구축이 아쉽거나 뮤지컬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무대예술만의 상상력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기술 시대에 공연예술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작품성과 실제 무대화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독창성과 동시대성을 두루 갖춘 설득력 있는 대본, 작품의 특성에 맞는 음악적 시도와 악기 구성, 무대연출에 대한 아이디어, 홍보마케팅 전략, 적절하고 체계적인 예산수립을 통한 콘텐츠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설 단체와 신진 창작자들의 실연 심의를 통한 발전 가능성 또한 세심히 살피려 노력했습니다.

실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11개 사업단체에 축하의 말씀 드리며 좋은 결과로 이어져 2025년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사업 역시 저마다의 가치와 긍정적 가능성을 지닌 작품이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며 공연예술 우수 신작을 발굴해 왔습니다. 이번 공모에 신진과 기존 프로덕션의 적극적인 지원은 본 사업이 국내 창작 작품의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창작산실이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 양질의 창작 뮤지컬이 개발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